

정부, 온실가스 통계전문가 육성

정부가 온실가스통계 국제전문가 연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온실가스 통계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국제사회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.

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UNFCCC(기후변화협약)와 공동으로 <UNFCCC 국가온실가스통계보고서(NIR) 검토전문가 연수 세미나> 를 10월19일부터 3일간 서울 해밀턴호텔에서 개최한다.

행사를 위해 UNFCCC는 각 국가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13개국 34명의 참가자를 1차 선발했으며, 참가자들은 세미나에서 연수를 받고 일정 시험을 치른 후 UNFCCC 공식 국가통계보고서 검토자로 최종 선발된다.

2010년 6월 개소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8월 UNFCCC와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해 행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은 개최국으로서 UN으로부터 세미나에 참가하는 10명 외에 추가로 16명을 뽑을 수 있는 배려를 받아 국내 온실가스통계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현재 기후변화협약 체계에서 Annex I 국가(선진국)들은 UNFCCC에 매년 의무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non Annex I 국가로 통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10/10/18>